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	안웅섭 전화: 031-888-9055, 이메일: aws6912@snu.ac.kr

배포일: 2024.11.28.(목)

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, '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'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

- 서울대학교 · 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원장 차석원, 이하 '융기원')은 '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' 에서 지방공공기관 부문 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.
-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 해소와 공직문화 혁신을 목표로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,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대회다.
- 올해는 지자체 136건, 지방공공기관 81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,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공기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.
- 융기원은 '대기오염 감시의 대전환, 세계 최초 스캐닝 라이다로 불법 배출 제로!' 사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.
- 이 기술은 반경 5km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치와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며, 24시간 대기질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.

- 스캐닝 라이다는 용기원이 삼우TCS, 부경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활용됐다.
- 이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단속의 효율을 높였다.
- 김관철 첨단환경감시센터장은 “이번 수상은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용기원이 노력해 온 기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” 라며, “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은 대기오염 감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,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” 고 말했다.
- 용기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의 상용화와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.
- 이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뿐 아니라 도시 대기질 관리, 산불 조기 탐지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.
- 용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 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,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,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.